

基督教의 企業倫理

柳一韓氏의 경우

高 範 瑞*

I. 本研究의 意義

근자에 基督教神學은 text 와 context 의 관계를 강조하고, 또는 context 의 중요성을 力說하여 contextualism 을 주장한다. 이러한 傾向은 神學이 基督教의 眞理를 주어진 社會的 現實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경향은 바람직한 것이요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기독교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變革하는 生命力있는 力動的 宗教가 되기 위해서는 聖經의 말씀이 주어진 時代와 社會的 狀況 속에서 의미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分明히 이해하고 그것을 現實 속에서 실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社會的 現實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眞理는 非時間的 眞理요 그러한 眞理는 現實을 改革하고 이끌고 나가는 힘을 갖지 못한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工業化가 急速히 進行되고 있으며 經濟가 急成長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는 產業社會로 급속하게 變化해 가고 있다. 우리는 產業社會 속에서 聖經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서 가장 슬기롭고 効率的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眞摯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聖經이 오늘의 產業社會에 대해서 말해 주는 중요한 메시지의 하나는 企業을 어떻게 運營할 것이며 財産을 어떻게 管理하고 使用할 것인가 하는 이른바 「청지기」(steward) 혹은 「청지기의 직」(stewardship)에 관한 진리이다. 基督教가 이 진리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經濟發展과 產業發達은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회를 가져올 것이다. 오늘의 經濟的 急成長이 계속 유지되고 우리나라민에게 참된 福祉를 가져다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의 職의 精神이 產業界에 널리 보급되고 활발하게 실현되어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의 직의 精神, 혹은 倫理에 의하면 財産과 企業은 개인의 私有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委任하신 管理의 對象이다. 청지기의 思想에서 볼 때 財産家와 企業主는

*總 長

所有主가 아니라, 管理人에 지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財産과 企業은 그것을 自己 한 개인이나 家族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社會를 위해서 관리하고 善用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代身하여 이웃과 社會의 幸福과 福祉를 위해 財産과 企業을 관리하고 운영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청지기 倫理는 좀더 넓게 생각하면 基督教과 産業倫理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Ⅱ. 研究方法

基督教과 産業倫理를 研究하는데 있어서 두가지 接近方法을 생각할 수가 있다. 그 하나는 基督教이 韓國의 땅에 전해져서 지금까지 産業界와 經濟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앞서 말한바 있는 청지기의 倫理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고 또한 檢討하는 方法이다.

이것은 예컨대 Max Weber 가 그의 『프로테스탄트主義의 倫理와 資本主義精神』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研究方法으로써, 基督教이 財産管理과 企業運營에 대해서 미친 영향을 倫理的으로 분석하고 검토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肯定的일 수도 있고 否定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研究는 매우 광범위하고 또 많은 時間을 요한다. 따라서 筆者는 이 研究方法를 택하지 못했다. 단지 여기서 이러한 研究의 結果로서 예상되는 바를 말한다면 극히 少數의 財産家 혹은 企業家 특히 美國에 가서 淸教徒의 精神과 文化의 영향을 意識 無意識 중에 직접 받은 몇몇 人物들이 청지기의 윤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 精神이 企業에 있어서 반영 되었다는 印象을 받는다. 이러한 경우를 除外하면 우리나라 基督教에 있어서는 청지기의 思想이 관심의 對象이 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별로 영향을 주지도 못한 것 같다.

다른 또 하나의 研究方法는 청지기의 직의 精神이 현저하게 반영된 企業運營과 財産管理의 典型的인 例를 밝히고 分析하고 解釋함으로써 다른 企業家 특히 基督教企業家は 그래야 한다고 當爲의 主張을 하는 것이다.

筆者는 後者の 方法을 위한 模範의 例로서 柳韓洋行의 創立者요 그 運營者였던 柳一韓社長을 택했다. 筆者가 이해하기에는 우리 社會에 있어서 성경이 말해 주는 청지기의 倫理를 제대로 이행했고 또 그 精神을 財産管理과 企業運營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낸 人物을 찾는다면 그가 곧 柳一韓社長이었다고 생각된다.

Ⅲ. 柳一韓의 生涯

柳一韓은 1895년 平南 平壤에서 柳基淵의 8男妹의 長男으로 출생했다. 先親 柳基淵은 開化

된 商人으로서 그 당시 이미 Singer 미싱의 代理店을 경영하였다. 그는 信仰心이 굳은 독실한 基督教信者로서 未來를 내다 보는 慧眼과 큰 포부를 가진 正義感이 투철한 愛國者였다. 그는 李承晩, 정순만, 朴容萬 등 當時의 青年愛國志士가 「젊은 사람들을 많이 외국에 보내어 새교육을 시켜야 빨리 나라가 開化되고 그럼으로써 나라가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부르짖은 데 감동하여 9살인 少年 柳一韓을 1904년 大韓帝國 巡回公使 박정연의 멕시코 巡訪을 따라 美國으로 가게 했다.

柳一韓을 渡美시킨후 6년 뒤에 韓一合邦이 되자 父親 柳基淵은 北間島로 가서 獨立黨의 財政的 後援을 맡아 獨立抗日鬪爭에 투신했다. 그가 아들을 渡美시킨 것도 新天地 美國에서 見聞을 넓히고 經綸을 쌓아 누구보다도 크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한편 柳一韓은 渡美하여 「네브라스카」로 가서 誠實한 浸禮教 信者인 美國人 집에 기숙하면서 苦學으로 國民學校를 거쳐 1915년 네브라스카 高等學校를 졸업했다. 그는 高等學校 재학시절에는 이름난 美式蹴球 選手였으며 선수 장학금을 받았다. 고등학교의 축구선수 시절에 형성된 底力과 突破力은 후일 그가 企業家가 되었을 때 그가 進取的이고 開拓的인 企業經營家가 되게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原動力이된 것으로 짐작된다. 1919년 미시간大學을 卒業하고 제너럴 엘렉트릭 會社의 유일한 東洋人 會計士로 취직했다. 그리고 學窓時節에 알게 된 中國 廣東의 상당한 家門의 姪子인 小兒科醫師 胡美利 女史와 결혼했다. 실은 제너럴 엘렉트릭會社는 柳一韓을 장차 東洋市場開拓을 위한 總支配人職을 맡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는 事業을 하여 資金을 마련한 후 귀국하기로 결심하고 會社를 그만두었다.

柳一韓이 선택한 사업은 中國料理에 쓰이는 숙주나물을 키워서 파는 것이었다. 숙주나물은 中國人의 음식인 만두의 맛을 제대로 내는 구실을 하며 中國음식에 꼭 끼어야 하는 材料였다. 그런데 당시의 美國에 있어서는 숙주나물의 原料인 녹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많은 華僑들이 맛이 제대로 나지 않는 만두를 먹어야만 했다. 또한 숙주나물이 들어간 中國料理가 널리 보급되어 中國料理를 좋아하는 美國人이 많아졌으나 중국요리집에 가기를 꺼려 자기집에서 만들어 먹기를 원했다. 柳一韓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新鮮한 숙주나물을 供給하면 企業이 성립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신선한 숙주나물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곁에 그것이 항상 있게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숙주나물을 透明한 유리병에 넣어서 잘 들여다보일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유리병은 파손율이 많았고, 그 보다도 致命的인 것은 유리병 속의 숙주나물이 오래 가지 않아서 마르거나 썩거나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研究와 實驗 끝에 드디어 터지지 않고 썩지도 않는 숙주나물 통조림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는 디트로이트에서 食料品을 경영하고 있는 大學時節의 친구 윌레스 스미드라는 美國

인과 함께 投資하여 1922년 「라·초이食品會社」를 설립하여 자신은 副社長으로 취임했다. 設立한지 약 4년 동안에 50餘萬弗에 달하는 거액의 收益金을 올렸다.

柳一韓은 1925년 22년만에 그림던 故國을 방문했다. 그의 귀국 목적은 숙주나물의 原料인 녹두를 대량으로 輸入해가기 위해서였다. 그는 잠시 서울에 들렀다. 家族을 만나기 위해서 北間島로 갔다. 그러나 그는 오래 머물지 않고 美國으로 돌아 갔다. 22년만에 故國의 모습을 본 그의 마음 속에는 事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나라사랑」이요 祖國의 發展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柳一韓은 美國에서 學生으로 있을 때부터 이미 愛國運動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3·1獨立萬歲運動이 있었던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필라델피아에서는 歷史的인 大集會가 열렸다. 이것은 國內에서 터진 3·1獨立萬歲運動에 호응하여 在美 韓國人이 各州에서 대표를 뽑아 대대적으로 열기한 美國에서 열린 또 하나의 3·1獨立萬歲運動이었다. 이 大會의 명칭은 韓人自由大會였으며 柳一韓은 李承晚, 徐載弼, 趙炳玉, 林炳稷 등과 함께 主要人士로서 참가했다. 이 大會에서 柳一韓은 韓國民이 民族自決을 허락받았을 경우, 즉 韓國民이 자신의 政府를 가지게 될 경우 나라와 民族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世界萬邦에 알리기 위한 「韓國民의 目的과 熱望을 釋明하는 決議文」 기초문안 작성을 위한 3人的 代議員의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다. 柳一韓은 그 決議文을 기초의원들을 代表하여 낭독했다.

그 당시 柳一韓은 미시간大學校에 재학중인 學生이었다. 學生 柳一韓으로 하여금 투철한 信念과 遠大한 抱負를 지닌 愛國者로서 성장케 한 與件으로써 柳韓洋行이 發行한 「柳韓五十年」은 다음의 4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나이 9세에 渡美行을 감행할 때 나라 사랑하는 큰 사람으로 成長해 주기를 바란 先親의 간절한 念願이 어린 少年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지워지지 않았던 일이고, 둘째는 感性과 知性이 가장 신선하고 발랄하게 눈뜨고 伸張하는 靑少年期를 美國의 가정과 사회에서 지내면서 접하고 受容한 基督教精神과 開拓精神이며, 셋째는 뜻을 같이하는 韓國留學生들과의 交分이며, 넷째는 아마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指摘되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두터운 友愛와 尊敬으로써 親交를 이루었던, 徐載弼博士로부터 받은 感化였다」¹⁾.

1925년 美國으로 돌아가서 뜻한바의 再歸國을 위한 構想과 整理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柳一韓에게 드디어 機會가 왔다. 당시의 세브란스 醫學專門學校의 學長 에비슨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그 초청의 내용은 柳一韓은 延禧專門學校의 商科 教授로서 가르치고, 夫人 柳胡美利 女史는 세브란스病院의 小兒科 科長으로 취임하라는 것이었다. 이 초청에 응하여 귀국하기로 결정한 그는 평소 존경하던 徐載弼 博士를 찾아 가서 그의 결심을 말했다. 徐 博士는 激動와 함께 後日을 期約했다. 그후 柳一韓이 귀국을 앞두고 다시 徐 博士를 찾아 갔을 때 徐

1) 柳韓五十年(서울: 柳韓洋行, 1976), p. 83

博士는 「韓國人을 잊지 마시오」라는 말과 함께 紀念의 情表로서 木刻畫 한장을 내주었다. 그것은 徐博士의 命愛가 손수 조각한 木刻의 그림으로써 앞사귀와 가지가 무성한 한 그루의 버드나무였다. 柳一韓의 柳에서 着想된 이 木刻畫에는 故國에서 나라와 民族을 위해서 한 그루의 큰 버드나무처럼 끈질기게, 무성하게 大成하기 바란다는 뜻이 담겨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木刻의 버드나무 그림은 柳韓洋行 草創期의 마아크로 使用되었으며, 그후 現在에 이르기까지 部分的 變形을 거치기는 했으나 그대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

귀국한 그는 바로 행동을 개시하지 않고 그의 나갈 길을 신중히 검토했다. 에비슨 學長의 초청대로 延禧專門學校의 教授가 되어서 教育家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企業을 運營하는 事業家가 되느냐의 두 가지 길 중 어느쪽을 택할 것인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망서렸다. 前者가 韓國의 열과 能力을 지키고 키움으로써 내일을 담당할 젊은 同胞에게 꿈과 意志와 勇氣와 自主精神을 심어주는 길이라면, 後者는 民族의 資產을 키워 民族을 日帝의 經濟的 奴隸에서 구출하는 길이었다. 드디어 그는 後者 곧 事業의 길을 택하기로 결정했다.

1926년 12월 10일 現 鍾路 2街에 위치한 德元 빌딩에 社屋을 정하고 柳韓洋行이 출발했다. 會社의 마아크로는 徐載弼 博士의 깊은 뜻이 담긴 木刻畫의 버드나무 그림으로 택했다. 社의 이름은 柳一韓의 가운데 이름자인 一字를 빼고 「柳韓」에 洋行을 붙여서 「柳韓洋行」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柳韓의 「柳」는 創業者 柳一韓의 姓이고 「韓」은 그의 이름자이기도 하지만 韓國을 상징하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실은 柳一韓의 본래 이름은 柳一馨이었다. 그러나 美國에서 공부하던 학창시절에 柳一韓은 자신이 꿈에도 잊지 못하는 고국, 韓國의 백성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의 돌림자인 끝자를 韓으로 고쳐 改名했던 것이다. 귀국후 柳一韓은 兄弟들까지 모두 「韓」자 돌림으로 改名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柳韓」이라는 社名 속에는 創立者 柳一韓의 國家와 民族에 대한 깊은 情의 情이 담겨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創立된 柳韓洋行은 1971년에 柳一韓이 享年 77歲로 死亡하기까지 계속 發展에 發展을 거듭했다. 그동안 柳韓洋行은 日帝下의 抑壓과 受難, 解放의 混亂, 6·25戰亂등의 온갖 試鍊을 克服하면서도 發展을 거듭했다. 특히 그의 企業이 正直과 誠實, 그리고 民族의 參與 利益과 福祉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正道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것처럼 發展과 繁榮을 계속했다는 것은 柳一韓의 강한 企業推進力과 創意的 開拓精神이 남아 놓은 하나의 기적에 가까운 사실이라고 하겠다.²⁾

IV. 柳一韓의 經營理念

柳一韓의 企業經營의 哲學은 다음과 같은 柳韓洋行의 企業信條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정

2) 柳一韓氏의 生涯에 관한 高찰은 全的으로 「柳韓五十年」의 pp. 74—91까지에 의존했다.

성것 좋은 商品을 만들어 國家와 同胞에 奉仕하고, 正直 誠實하고 良心의인 人才를 양성 배출하여, 企業利益은 첫째 企業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고, 둘째는 正直하게 納稅하며, 셋째는, 그리고 남은 것은 企業을 키워 준 社會에 환원한다」.³⁾ 柳一韓의 企業理念의 이러한 要約 속에는 產業社會 속의 청지기의 倫理의 基本眞理가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하에 있어서 이 要約 속에 들어 있는 청지기의 倫理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正直과 誠實은 柳韓洋行의 社訓이라고 할 수 있다. 柳一韓은 「正直, 이것이 柳韓의 永遠한 傳統이 되어야 한다」⁴⁾고 말했다. 그는 또 「企業의 第一目標은 利潤의 追求이다. 그러나 그것은 誠實한 企業活動의 代價로 얻어야 하는 것이다」⁵⁾라고 말했다. 이러한 正直과 誠實은 청지기의 倫理의 基本的 眞理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基督教精神에 의하면 職業은 하나님께서 불려서 맡긴 召命(Beruf 혹은 calling)이요, 召命으로서의 職業의 責任 遂行에는 正直과 誠實이 本質의으로 속하여야 함이 疑心의 餘地가 없기 때문이다.

柳一韓의 企業理念으로서의 正直과 誠實은 하나의 어려운 問題를 제기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正直이 無能과 愚鈍이 되고, 협잡과 부패가 有能으로 통하는 不條理가 지배하는 社會 속에서 과연 正直과 誠實에 의해서 企業을 유지할 수 있으며, 더군다나 企業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解放後의 부패와 혼란 속에서도 正直과 誠實을 信條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企業에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正直하고 誠實한 企業家도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본을 우리 社會에 보여 주었던 것이다.

그러면 그로 하여금 正直하고 誠實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두게 했던 秘訣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그가 積極的인 推進力과 創意的인 開發精神을 겸비한 事業家였다는 사실에 있었던 것 같다. 高等學校 時節에 美式蹴球의 선수였던 그는 基督教人들의 世界에 있어서는 드물게 찾아 보는 積極的인 進取性과 強力한 推進力을 가진 事業家였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미 숙주나물에 착안하여 새로운 企業을 개척함에 있어서 보여준 바와 같이 그는 企業的 成功의 要諦라고 할 수 있는 創意的 開發精神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가 企業에 성공한 것은 단순히 正直하고 誠實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積極的 推進力과 創意的 開發精神을 동시에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일 그가 正直하고 誠實하기만 하고 이러한 推進力과 開發精神을 가지지 못했더라면 그는 企業에 있어서 失敗者가 되었을 것이다.

聖經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主人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누가福音 16장 8절)」。 이 말은 오늘의 產業社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意味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機能社會인 오늘의 產業社會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인 基督教人이 專門的 知識과 技

3) 柳韓五十年, p. 114

4) 上揭書, p. 29

5) 上揭書, p. 26

能에 있어서 이 세대의 아들 곧 세상의 아들에 뒤떨어지고 落後되는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오늘의 產業社會에 있어서는 基督教人은 빛의 아들인 것만으로는 不足하고 知識과 技能에 있어서도 세상의 아들에 앞장서는 「슬기로운 빛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柳一韓이야말로 슬기로운 빛의 아들이 무엇인가를 企業家로서 밝히 보여 주었다고 할 것이다.

둘째, 柳一韓에게 있어서는, 企業의 目的은 社會에 대한 貢獻에 있었다. 그는 企業을 個人의 富貴榮華를 위한 것이 아니라 國家와 同胞에 奉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굳게 믿었다. 그래서 그는 「利潤의 追求는 企業成長을 위한 必須先行條件이지만 企業家 個人의 富貴榮華를 위한 手段이 될 수 없다」⁶⁾고 했고 또한 「企業은 社會의 利益增進을 위해서 存在하는 機構이다」⁷⁾라고도 했다. 그는 企業을 통해서 자기 한 個人의 富貴와 幸福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企業에 의해서 이웃을 幸福하게 해주려고 했었다. 이것을 그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있다. 「눈으로 남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귀로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머리로 남의 幸福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더욱 훌륭한 사람이다」⁸⁾.

그의 이러한 企業精神은 곧 그대로 청지기의 倫理와 直通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청지기에 해당되는 現代語는 「管理人」일 것이요, 이때의 管理人은 곧 企業과 財産을 이웃과 겨레를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人類를 위해서 관리하는 사람을 意味한다. 그렇다면 柳一韓의 企業理念이야말로 청지기의 精神을 가장 밝히 나타낸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企業을 社會의 利益을 增進하기 위한 機構로서 생각했기 때문에 企業의 利潤에 앞서 어떠한 製品이 社會에 가장 큰 貢獻이 되는가를 생각했다. 예를 들면 1930年代의 後半期에 「柳韓」의 社勢가 破竹之勢로 滿州와 中國大陸으로 떨어 나가고 있던 時節, 幹部社員 한사람이 滿州地域과 國內地方의 市場調査를 마치고 와서 「해로인·모르핀」藥劑가 利潤이 매우 높다고 하여 그것의 製造販賣를 제의했다가 柳一韓社長에게 호된 꾸지람을 받았다.⁹⁾ 그는 이 幹部社員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한다.¹⁰⁾ 柳韓洋行은 製造하여 販賣하는 藥品을 광고하는데 있어서도 그 내용이 啓蒙을 겸하고 있었다.

셋째, 正直한 納稅는 柳一韓의 企業信條의 하나였다. 그는 企業의 利潤을 통한 國家에의 寄與를 위하여 納稅를 誠實히 하였다. 그는 企業의 成功이 곧 國力의 伸張이며 企業家가 愛國하는 첫째의 方法이 誠實한 納稅에 있다는 것을 信念으로 가지고 있었다. 1967년 11월에 실시한 稅務査察에서 柳韓洋行은 完全한 納稅社로 인정되어 제 2회 「세금의 날」에 國內 최초의

6) 上揭書, p. 26

7) 上揭書, p. 27

8) 上揭書, p. 28

9) 上揭書, p. 628

10) 朴判滄, 柳一韓의 經營理念, 「經營研究」(서울: 高大企業經營研究所, 1973), pp. 8582

國家銅塔勳章을 받았고 1년간 稅務査察을 면제받았다.

美國의 神學者 Joseph Fletcher 는 그가 주장한 狀況倫理에 의해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 Fletcher 가 1967년에 「Moral Responsibility」라는 標題를 부친 그의 論文集을 出版했다. 이 책의 제11장과 12장에서는 淸지기의 직과 그 倫理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여기서 그는 「淸지기의 직은 租稅이다(Stewardship is taxation)¹¹⁾」라고 確固히 主張했다. 그는 이러한 그의 主張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바드大學校의 經濟學者 John Kenneth Galbraith 가 그의 著書 「The Affluent Society」 속에서 사용한 「微視的 經濟學」(microeconomics)과 「巨視的 經濟學」(macroeconomics)이라는 概念에서부터 「微視的 倫理學」(microethics)과 「巨視的 倫理學」(macroethics)이라는 概念을 만들어서 사용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物質이 不足했던 지난 날의 方法에 의하거나 혹은 個人的 救濟에 참여하는 古典의 政策에 의해서 는 淸지기의 직을 충분히 수행할 수가 없다. 淸지기의 직의 수행을 소리 높여 외치는 人類의 요청은 社會的인 것이며 社會的 構造와 行政的 形態에 있어서의 反應을 要求하고 있다. 나는 그것이 主로 富裕層에 대한 稅金賦課라고 생각한다. 이보다 덜한 것은 어떤 것이나 微視的 倫理요 보잘것 없는 道德主義(petty moralism)이다.」¹²⁾ 그는 產業이 아직 발달되지 않아서 生産이 충분히 못하고 따라서 物質이 不足했던 產業社會 이전의 「缺乏의 時代」(Scarcity Era)와 物質이 豐饒한 오늘의 產業社會의 「豐饒의 時代」(Plenty Era)를 구별한다. 그에 의하면 救濟와 慈善을 淸지기의 직으로 생각했던 것은 缺乏의 時代에 있어서의 微視的 倫理의 입장에서 본 淸지기의 직이다. 豐饒의 時代에 있어서는 이미 生産이 문제가 아니라 分配(distribution)가 문제이며 「分配는 말할 것도 없이 淸지기의 직의 문제이다」¹³⁾ 라고 그는 力說한다. 그리고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淸지기의 직은 곧 租稅이며 그것이 바로 豐饒의 時代에 있어서의 巨視的 倫理의 입장에서 본 淸지기의 직이라고 다시 그는 力說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柳一韓의 納稅 思想이야 말로 Fletcher 의 淸지기의 직에 대한 思想과 一致하며, 그야말로 巨視的 意味에 있어서의 淸지기의 직을 가장 忠實히 실천한 人物이라고 할 것이다.

덧붙여, 柳一韓은 企業의 利潤은 그것을 키워 준 社會에 환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한 그는 실제로 그렇게 실천했다. 그는 「企業에서 얻은 利益은 그 企業을 키워 준 社會에 還元하여야 한다」¹⁴⁾고 믿었다. 그가 이렇게 企業을 키워준 것이 社會라는 것을 알아 차린 것은 그로서는 너무나 當然한 사실이요 진리이겠지만 극히 少數의 훌륭한 企業家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을 看破했던 것이다.

11) Joseph Fletcher, *Moral Responsibility*(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7) p.198.

12) *Ibid.*, p.202.

13) *Ibid.*, p.198.

14) 柳一韓五十年, p.26.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어떠한 企業家도 그의 企業이 자기의 私有物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어떠한 企業體도 企業家와 그의 家族과 親族만에 의해서 운영될 수 없다. 企業體의 社員과 從業員은 우리나라의 各種 教育機關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러한 教育기관들은 教育者들과 學生들의 父母에 의해서 유지되어지고, 넓게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온 국민과 심지어 外國의 국민까지도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록 家族과 親族들만에 의해서 경영되는 企業體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받은 교육이 벌써 사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商品을 소비해 주는 것은 국민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떠한 企業主도 그의 企業이 자기 한 사람의 것이요 그와 그의 家族만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은 私有物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柳一韓은「企業의 所有主는 社會이다. 단지 그 管理를 個人이 할 뿐이다」¹⁵⁾라고 했던 것이다. 우리는 다만 그의 훌륭한 思想에 머리를 숙일 수 있을 따름이다.

企業을 키워 준 것이 社會요, 企業의 利潤이 社會에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마땅히 社會로 환원되어야 할 것이다. 「청지기」라는 말 그대로 企業主는 企業體의 從業員을 위시해서 그리고 社會成員 全體를 위해서 企業體를 管理하는 「管理人」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柳一韓은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했다. 그는 1971년 3월 11일 享年 77歲로 永眠했다. 다음 달 4월 8일 그의 遺言狀이 公開되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 유언장에 의하면 當時 7歲였던 孫女 柳일령에게는 大學卒業까지의 學資金으로서 1萬弗(당시 320萬圓)을 주었다. 令愛 柳載羅에게는 柳韓中工高 構內에 있는 그의 墓所 및 그 周邊 대지 5千坪을 상속하되 이를 「柳韓동산」으로 꾸며 줄 것을 당부했다. 令息 柳逸善에게는 「大學까지 卒業시켰으니 앞으로는 自立해서 살아가라」는 말만을 傳했다고 한다. 그리고 自己 所有의 柳韓洋行 株式 14萬941株 전부를 財團法人 「韓國社會 및 教育信託基金」에 기증함으로써 뜻있는 社會事業과 教育事業에 쓰이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청지기의 직이 무엇인지를 실천을 통해서 밝히 보여 주었다.¹⁶⁾

끝으로 柳一韓은 그의 企業體를 하나의 共同運命體로 운영함으로써 產業社會에 있어서의 청지기의 직의 진리의 새로운 進步的 側面을 밝혀 주었다. 그는 「企業에 從事하는 모든 사람은 企業活動을 통한 하나의 共同運命體이다」¹⁷⁾라고 믿었고, 사실 그의 企業運營에 있어서 이 精神을 활발하게 들어냈다.

그는 從業員의 福祉厚生에 힘썼다. 즉 그는 종업원을 위하여 社宅, 寄宿舍, 휴, 運動場, 및 各種 衛生施設을 갖추었다. 그가 이런 시설을 했던 1930년대에는 從業員의 福祉厚生의 시설에 대한 아무런 法的 制度나 行政的 措置가 아직 없었는데도 그는 벌써 이렇게 했던 것이다.

15) 上揭書, p. 27.

16) 上揭書, p. 233 참조

17) 上揭書, p. 27.

그는 또한 그 당시 벌써 株式公開와 從業員 持株制를 실시하여 株式分散의 高度化를 實現함으로써 企業利益을 企業家 個人이 獨占하지 않도록 하였던 것이다. 1936년 任員과 從業員에게 一部는 有償으로 一部는 恩惠의 措置로서 株式을 分割하였다. 그리하여 그 당시 總株式數 1萬5千株에 株主가 22名에 달했다. 그리고 1962년에는 株式을 公開하여 株式所有의 大衆化를 실현하였다.

V. 結 論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柳一韓은 청지기의 직을 정말 훌륭하게 그의 企業運營에 있어서 실행했다. 그의 이러한 精神은 우리나라 企業界 전체에 전달되고 알려져서 柳一韓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企業人이 그 精神을 받아드려 실천에 옮기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產業이 急速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經濟가 急成長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祝福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產業化와 經濟的 發展이 반드시 希望만을 約束해 주고 祝福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많은 社會的 人間의 問題가 따라오게 마련이고, 특히 貧富의 隔差가 생기게 되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產業과 經濟의 發展이 도리어 不幸하고 悲慘한 結果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 문제는 나라가 둘로 分斷되어 있고 민족이 이데올로기적으로 對立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하다. 大韓民國이 가야할 길은 共產主義가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렇다고 해서 自由放任의인 資本主義도 아니다. 우리가 취하여야 할 길은 兩者中의 어느 것도 아니요 우리자신의 제3의 길이다. 이 길은 다름이 아니고 民主主義에 의한 政治的 自由와 產業의 民主化에 의한 經濟的 平等의 調和일 것이다. 그런데 共產主義의 暴力革命에 의하지 않고 經濟的 平等을 실현하는 길, 다시 말해서 自由企業制度를 살리면서(물론 여러가지 制度的 安全裝置가 필요하지만) 經濟的 平等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聖經이 말하는 청지기의 직의 精神을 制度와 政策에 있어서 슬기롭게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產業社會에 있어서의 分配의 문제를 自由企業制度를 위협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은 청지기의 직의 精神이 企業運營에 있어서 활발하게 실천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柳一韓의 企業倫理가 얼마나 貴重하고 또한 重要한지를 새롭게 느끼게 된다. 그의 經營倫理는 높이 밝혀지고 널리 알려져서 그의 高貴한 精神과 模範이 우리나라 企業界 全體를 變革시킬 때 오늘 우리나라의 產業과 經濟의 發展은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참된 祝福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